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특성 연구 - 대전지역 중심으로

김다솔*, 최완식**

<국문초록>

급격한 산업 성장 시기 전문기능기술인을 양성하던 특성화고등학교가 학령인구의 감소,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 기능직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입시경쟁에서 밀려난 하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로 변화했다.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는데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때 중학교 교사의 영향(23.69%)을 가장 크게 받는다고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즉,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의 조기 진로지도를 통하여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소질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인식에 따른 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률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2018년 대전광역시에 있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담임교사가 남자일 때 21.01%(M=.2101)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교사 간에도 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비사범대 출신(M=.2110), 박사인 경우(M=.3064) 상대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할 확률이 높았다.

교사의 인식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이해(β_1)와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β_2)'이 같이 높아질 때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y)'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0.1%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식은 $y = -0.56 + 0.037 * \beta_1 + 0.025 * \beta_2$ 10.1%($R^2=0.101$)이었다.

주제어 : 특성화고등학교, 담임교사, 진학 결정, 진로지도

* 김다솔(losad721@naver.com), 대전세미래중학교 교사, 042-828-3860

** 교신저자: 최완식(wonsik@cnu.ac.kr),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 교수, 042-821-569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주요한 직업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서 기능인과 같은 육체노동을 꺼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점점 꺼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등학교는 입시경쟁에서 밀려난 하위권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학교로 인식되었으며, 다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꺼리고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결과 산업에서의 수요를 초과하는 고학력의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과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술 인력이 담당했던 업무를 대졸자가 담당하게 되는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비교하면 고학력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다 보니 단순 제조업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고학력의 인력은 구직난을 겪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적절한 진로지도를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지원해야 하며,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등 다양한 수준의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2008년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매직사업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선취업·후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병덕(2017)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는데 개인의 특성, 가정의 특성, 학교의 특성, 특성화고 정책, 특성화고 인식 등이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에서 진로지도, 진로상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김장현(2014)은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학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진로진학 담당 교사와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주로 담당하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양선주, 김소연, 이규녀(2014)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약 80%의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에 진학을 결정하였고, 타인의 영향을 받은 학생 중 '중학교 선생님(23.69%)'의 영향을 받았다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어떠한 특성들이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성과 소질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여 산업 수요에 적절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력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의 노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이 조기 진로지도를 위한 역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어떤 특성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 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학급 담임교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학력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가. 담임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나. 담임교사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담임교사는 학급을 경영하고 학급의 소속 학생들의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를 책임지는 교사를 의미한다.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중학교 3학년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로 다른 학년의 담임교사와 비교해 진로지도 및 고등학교 진학지도에 더 큰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나. 진학 결정

진학 결정은 하급학교에서 상급학교로의 진학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의 특성, 성적, 적성, 진로계획 등과 진학할 학교의 지역, 유형, 특성, 교육과정,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담임교사의 특성

교사의 특성은 교직원, 교직발달단계, 리더십, 성격유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진학교사가 아닌 교사의 특성에 따른 진로지도 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한혜정(2003)은 자기 존중감과 직무만족도에 따른 진로교육 태도 및 지도 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최민지(2011)는 성별, 교직경력, 진로연수 경험, 학교 유형, 담임 여부에 따라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진로교육 관심 단계, 실행수준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유금연(2009)은 교직 헌신에 대한 연구에서 교사의 특성을 개인적 배경 특성과 교직특성으로 분류하였다. 개인적 배경 특성은 성별, 근무학교, 결혼 여부, 보직교사 여부, 학력, 교직경력, 교직 양성과정, 현직연수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교직특성은 교직선택 동기, 교직원, 교사 효능감, 교사 - 학생 관계로 구분하였다.

권지영(2014)은 담임교사의 역할로 교수·학습자로서의 역할, 생활지도자로서의 역할, 학급환경관리자로서의 역할, 학급사무 관리자로서의 역할, 가정과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진로지도자로서의 역할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사의 특성을 성별, 연령, 교직경력, 담당 학년, 학력으로 구분하였다. 교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성별, 경력, 근무학교 유형 등 교사의 개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교직원, 교사 효능감 등 교직의 특성을 정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진로 결정의 요인

진로는 한 개인의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해서 체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 결정 이론은 인간발달의 개념을 진로교육에 도입하여 진로발달을 개인의 전체적인 발달의 한 측면으로 보는 진로발달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최은영, 2011). 또, 진로 결정이란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강선영, 1996). 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삶의 본질을 결정하고, 삶의 내용과 수준, 가치를 결정짓는 것을 의미한다(이명훈, 2015).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김우영, 신희경(2005)은 주로 진로를 결정하는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진로 미결정 집단에 관심을 둔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Walsh & Oispow(1988)은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환경적, 경험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진로미결정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Holland & Holland(1977)은 직업미결정집단을 단순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집단과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인한 집단을 구분하였다.

위 연구와 같이 진로 결정은 개인의 특성, 가정·학교·사회문화 등 환경적 요인, 개인의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진로 결정과 관련된 연구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진

로 결정과 관련된 변인을 이성도(2002)는 성, 학업성취도, 학교 소재지, 진로지도 교육 경험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교육수준, 가정의 소득, 타인의 영향, 자아개념 등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재완(2006)은 성별, 지역, 학년 등 개인적 요인,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 도움 정도, 적성검사의 결과 활용 정도 등 환경적 요인, 직업의 필요성, 귀천 여부, 선택 시기, 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 고용시장의 경향 등 직업적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김우영, 신희경(2005)은 성별, 학교성적, 자아관, 동기로 이루어진 개인 변인과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대화시간, 직업정보 찾기로 이루어진 가정 변인, 교사의 성별, 연령, 경력, 교과 및 학생의 강연참가와 직업체험 여부, 학과 및 학교 안내, 적성검사, 진로상담, 특기적성수업, 상담실의 존재 여부, 진로지도 정도로 이루어진 학교변인으로 구분하였다.

3.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 결정의 요인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박은혜(2012)는 응답자의 성별, 응답자의 성적 수준, 부모의 학력, 경제적 수준, 학교 유형, 진학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진로상담 여부 등을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박몽진(2004)은 환경적 요인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구조적 학교환경, 기능적 학교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학교환경으로는 학교의 시설, 진로교육, 교육과정으로, 기능적 환경은 교사와의 관계, 학생 간의 관계, 동아리 활동, 학교에 대한 만족 정도로 구분하였다.

이명훈(2015)은 학생의 성별, 성적, 학교 계열, 진로장벽, 가족 인원, 교육 만족 등을 진학 결정의 요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른 연구를 통해 이명훈(2016)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 부모의 진로 관련 모델링, 진로장벽의 하위 변인인 직업정보 부족 등으로 선정하여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는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적 변인에서 모두 학교 변인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중 학생들의 진로교육 이수 여부와 함께 담임교사의 진로지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조운신(2003)은 중학생들이 담임교사와 가장 상담을 하고 싶은 문제가 진로 문제이며, 다양한 정보를 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즉, 담임교사는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야 한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에 따른 주요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절차와 내용

2. 자료수집 및 조사 도구 개발

가. 자료수집 대상

조사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직업교육 연구회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

나. 조사 도구 개발

문헌연구를 통해서 추출한 교사의 특성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대전직업교육연구회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대상자들에게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지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요인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개방형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설문지 개발 후에는 교육경력 10년 이상, 박사수료 또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 3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3. 본조사

가. 조사대상

본 조사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원서접수를 모두 마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2018년 대전광역시의 중학교는 88개교(공립72, 사립16)이며, 중학교 3학년

학급은 511(공립449, 사립62)개 학급(대전광역시교육청, 2018)이므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51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나. 조사 도구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6항목,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변인 5항목,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변인 1항목으로 선정하였다.

2) 종속변수

조사 대상인 담임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급의 규모와 구성원의 성별 등이 모두 다르므로 학급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한 학생 비율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1> 조사 도구

변수	구분	변인
독립변수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 성별 - 양성과정 - 학력 - 담당 교과 - 교직 경력 -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경력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	-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특성화고등학교 전공에 대한 이해 -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긍정적 인식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종속변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 비율	- 남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 비율 - 여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 비율 - 전체 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 비율

4. 조사결과 분석

총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226부가 회수되어 44.2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누락이 있는 응답 결과 9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항목	분류	빈도	%	항목	분류	빈도	%
성별	남자	80	36.9	담당 교과	국어	42	19.4
	여자	137	63.1		수학	26	12.0
양성 과정	목적형(사범대)	155	71.4		영어	25	11.5
	비목적형(비사범대)	62	28.6		사회 및 역사	33	15.2
학력	학사	126	58.1		과학	27	12.4
	석사	85	39.2		기술·가정	39	18.0
	박사	6	2.8		도덕	5	2.3
교직 경력	5년 미만	42	19.4		음악	2	0.9
	5년 이상~10년 미만	34	15.7		체육	5	2.3
	10년 이상~15년 미만	41	18.9		선택과목	13	6.0
	15년 이상~20년 미만	70	32.3				
	20년 이상	30	13.8				

대전광역시 전체 중학생 수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현황, 응답자가 지도한 학생 수와 특성화고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전체 중학교는 남자학급 65학급, 여자학급 62학급, 남·여 합반 90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전광역시의 2019학년도 중학교 졸업자는 14,890명이며 이 중 15.3%인 2,281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 졸업자 7,833명 중 16.2%인 1,276명, 여학생 졸업자 7,057명 중 14.2%인 1,005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응답자가 지도한 학생의 수는 전체 학생대비 41.5% 수준인 6,183명으로 이 중 17.1%인 1,059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였고 지원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3,155명 중 18.8%인 593명, 여학생 3,028명 중 15.4%인 466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였다. 본 조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고 지원한 학생의 비율을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진학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 점을 통해서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통계처리에 있어 유의수준은 5%($\alpha=0.05$)로 설정하였다.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양성과정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으며, 담당 교과, 교직경력, 학력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Scheffe의 사후 분석을 했다. 중학교 3학년 교사 경력은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한 비율과의 관계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담임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학 결정을 분석 결과

가. 담임교사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남교사가 담임교사인 경우(M=.2249) 여교사가 담임교사인 경우(M=.1445)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할 확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3.337$, $p=.105$). 하지만 여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남교사일 때(M=.1592)와 여교사일 때(M=.1453)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594$, $p=.773$). 남·여학생 전체의 진학 결정을 역시 남교사가 담임교사인 경우(M=.2101) 여교사가 담임교사인 경우(M=.1548)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할 확률이 더 높았다($t=2.865$, $p=.005$).

<표 3> 담임교사의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종속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남학생 진학 결정을	남교사	76	.2249	.1669	3.337	.105
	여교사	79	.1445	.1302		
	계	155	.1879	.1542		
여학생 진학 결정을	남교사	43	.1592	.1279	.594	.773
	여교사	109	.1453	.1369		
	계	152	.1539	.1341		
합계 진학 결정을	남교사	80	.2101	.1472	2.865**	.005
	여교사	137	.1548	.1309		
	계	217	.1713	.1394		

나. 담임교사의 양성과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담임교사의 양성과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교사가 거친 양성과정은 목적형(사범대학 졸업)과 비목적형(교직이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t=-.830$, $p=.402$)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여학생 진학 결정을은 담임교사가 비목적형 양성과정을 거친 경우(M=.1868)가 목적형 양성과정(M=.1376)을 거친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39$, $p=.003$). 남·여 학생 전체의 진학 결정을은 목적형 양성과정을 거친 경우(M=.1608)보다 비목적형 양성과정을 거친 경우(M=.2110)가 더 높게 나타났다($t=-2.045$, $p=.044$). 교사의 다양한 전공과 경험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지도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여학생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4> 담임교사의 양성과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종속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남학생 진학 결정율	목적	115	.1775	.1498	-.830	.402
	비목적	40	.2023	.1669		
	계	155	.1879	.1542		
여학생 진학 결정율	목적	116	.1376	.1150	-1.939**	.003
	비목적	36	.1868	.1795		
	계	152	.1539	.1341		
합계 진학 결정율	목적	155	.1608	.1181	-2.045*	.044
	비목적	62	.2110	.1781		
	계	217	.1713	.1394		

다. 담임교사의 학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담임교사의 학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사의 학력은 소지 학위에 따라서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진학 결정율($F=4.420$, $p=.014$)과 남·여 학생 전체의 진학 결정율($F=7.734$, $p=.001$)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진학 결정율은 담임교사가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M=.3341$)가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M=.1584$)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남·여 학생 전체 진학 결정율도 박사학위 소지자인 경우($M=.3064$)가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M=.1477$)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담임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 결정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향은 남학생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 5> 담임교사의 학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종속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남학생 진학 결정율	학사	86	.1584a	.1413	4.420*	.014
	석사	64	.2065ab	.1644		
	박사	5	.3341b	.1246		
	계	155	.1879	.1542		
여학생 진학 결정율	학사	97	.1420	.1151	1.054	.351
	석사	52	.1570	.1636		
	박사	3	.2488	.1449		
	계	152	.1539	.1341		
합계 진학 결정율	학사	126	.1477a	.10547	7.734**	.001
	석사	85	.2066ab	.16965		
	박사	6	.3064b	.14569		
	계	217	.1713	.1394		

라. 담임교사의 담당 교과목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담임교사의 담당 교과목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사의 담당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및 역사, 과학, 기술·가정, 도덕, 음악, 체육,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진학 결정율($F=.791$, $p=.611$), 여학생의 진학 결정율($F=.716$, $p=.693$), 남·여 학생 전체의 진학 결정율($F=.935$, $p=.496$)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담임교사의 담당 교과목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종속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남학생 진학 결정율	국어	30	0.1573	0.1509	.791	.611
	수학	16	0.1983	0.1471		
	영어	17	0.1542	0.1382		
	사회 및 역사	26	0.2218	0.1447		
	과학	20	0.1848	0.1623		
	기술·가정	28	0.2053	0.1902		
	도덕	5	0.1051	0.1099		
	음악	0	.	.		
	체육	4	0.1015	0.0829		
	선택과목	9	0.2058	0.1371		
계	155	.1879	.1542			
여학생 진학 결정율	국어	28	0.1658	0.1685	.716	.693
	수학	20	0.1258	0.0919		
	영어	14	0.1133	0.0918		
	사회 및 역사	20	0.1773	0.1352		
	과학	23	0.1220	0.1112		
	기술·가정	29	0.1674	0.1583		
	도덕	3	0.2106	0.2049		
	음악	1	0.2727	.		
	체육	4	0.0946	0.0832		
	선택과목	10	0.1449	0.1225		
계	152	.1539	.1341			
합계 진학 결정율	국어	42	.1735	.16828	.935	.496
	수학	26	.1618	.12330		
	영어	25	.1424	.11827		
	사회 및 역사	33	.2008	.12489		
	과학	27	.1563	.10905		
	기술·가정	39	.2109	.17120		
	도덕	5	.1296	.13191		
	음악	2	.2727	0.00000		
	체육	5	.1118	.07396		
	선택과목	13	.1638	.10915		
계	217	.1713	.1394			

마.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교직경력을 설문에 응답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진학 결정율($F=1.394, p=.239$), 여학생의 진학 결정율($F=1.724, p=.148$), 남·여 학생 전체의 진학 결정율($F=2.044, t=.089$)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 담임교사의 교직경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종속변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남학생 진학 결정율	5년 미만	29	.1913	.1708	1.394	.239
	5년 이상~10년 미만	21	.1915	.1406		
	10년 이상~15년 미만	31	.1571	.1452		
	15년 이상~20년 미만	51	.1650	.1478		
	20년 이상	23	.2458	.1645		
	계	155	.1879	.1542		
여학생 진학 결정율	5년 미만	30	.1705	.1419	1.724	.148
	5년 이상~10년 미만	24	.1194	.1022		
	10년 이상~15년 미만	29	.1283	.09955		
	15년 이상~20년 미만	50	.1400	.1215		
	20년 이상	19	.2098	.2066		
	계	152	.1539	.1341		
합계 진학 결정율	5년 미만	42	.1735	.11531	2.044	.089
	5년 이상~10년 미만	34	.1782	.14335		
	10년 이상~15년 미만	41	.1495	.12901		
	15년 이상~20년 미만	70	.1628	.13201		
	20년 이상	30	.2378	.18097		
	계	217	.1713	.1394		

바. 담임교사의 중3 담임 경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담임교사의 교직경력 중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F=.713, p=.273$), 여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F=.766, p=.400$), 남·여 학생 전체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F=1.660, p=.199$)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8> 담임교사의 중3 담임 경력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종속변수	구분	B	S.E.	β	t	p
남학생 진학 결정을	상수	.170	.021		8.258	.000
	중3 담임 경력	.003	.004	.068	.844	.400
	F=.713(p=.400), R ² =.005, D-W=1.615					
여학생 진학 결정을	상수	.138	.018		7.594	.000
	중3 담임 경력	.003	.003	.066	.807	.421
	F=.651(p=.421), R ² =.004 D-W=1.734					
합계 진학 결정을	상수	.159	.016		10.093	.000
	중3 담임 경력	.004	.003	.088	1.289	.199
	F=1.660(p=.199), R ² =.008, D-W=1.664					

2. 담임교사의 인식에 따른 진학 결정을 분석 결과

가. 남학생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담임교사의 인식 변인을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과에 대한 이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이해,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추출하였다. 이들 다중 설명 변인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목적 변인을 ‘남학생의 진학 결정을’로 정하고 얻은 최종의 최적 모델(F = 7.008, p < 0.001)은 아래의 식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12.2%로(R²=0.122)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0.018 + 0.252*\beta_1 + 0.221*\beta_2 + 0.183*\beta_3$$

이 식에서 y는 ‘남학생의 진학 결정을’이며 β_1 은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β_2 는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며, β_3 는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다. 이 식은 이미 p 값<0.001로 모델의 선택된 세 변인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 값 또한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선택된 모델에서 다른 변수를 배제하고 개별 회귀계수($\beta_1=.252$, p= .002, $\beta_2=.221$, p=.009 $\beta_3=.183$, p=0.030)는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도 ‘남학생의 진학 결정을’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식의 성격은 담임교사의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같이 높아질 때 남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 결정에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표 9> 담임교사의 인식에 따른 남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남학생 진학 결정을				F	R ²	adjR ²
	상수	1)	2)	3)			
Model1	B	0.037	0.042		11.608 (p<.001)	.071	.064
	β		0.266				
	t	0.817	3.407**				
	p	0.415	0.001				
Model2	B	-0.061	.035	.030	7.914 (p<.001)	.094	.082
	β		.222	.160			
	t	-.921	2.771**	1.998*			
	p	0.359	.006	.047			
Model3	B	.018	.040	.041	7.008 (p<.001)	.122	.105
	β		.252	.221			
	t	.243	3.136**	2.635**			
	p	.808	.002	.009			

1):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이해, 2):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3):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나. 여학생 진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

목적 변수를 ‘여학생의 진학 결정’로 정하고 얻은 최종의 최적 모델(F = 4.465, p < 0.05)은 아래의 식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2.9%로(R²=0.029)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0.061 + 0.170*\beta$$

이 식에서 y는 ‘여학생의 진학 결정’이며 β는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 이 식은 이미 p 값<0.001로 모델의 선택된 세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또한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선택된 모델에서 다른 변수를 배제하고 회귀계수(β=.170, p=.036)는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도 ‘여학생의 진학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 모델식의 성격은 담임교사의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때 여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 결정에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0> 담임교사의 인식에 따른 여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여학생 진학 결정을		F	R ²	adjR ²	
	상수	1)				
Model1	B	.061	4.465 (p<.05)	.029	.022	
	β					.170
	t	1.400				2.113
	p	.163				.036

1):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이해

다. 전체 학생의 진학 결정율에 미치는 영향

목적 변수를 '전체 학생의 진학 결정율'로 정하고 얻은 최종의 최적 모델($F = 12.017$, $p < 0.001$)은 아래의 식과 같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10.1%로($R^2=.101$) 나타났으며,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 = -0.56 + 0.037\beta_1 + 0.025\beta_2$$

이 식에서 y 는 '전체 학생의 진학 결정율'이며 β_1 은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β_2 는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다. 이 식은 이미 p 값=0.000으로 모델의 선택된 세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값 또한 10 미만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선택된 모델에서 다른 변수를 배제하고 개별 회귀계수($\beta_1=.245$, $p=.000$, $\beta_2=.149$, $p=.027$)는 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 개별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진학 결정율'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식의 성격은 담임교사의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같이 높아질 때 남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 결정율에도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표 11> 담임교사의 인식에 따른 전체 학생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전체 학생 진학 결정율			F	R ²	adjR ₂
	상수	1)	2)			
Model1	B	.025	.043	18.745 (p<.001)	.080	.076
	β		.283			
	t	.692	4.329			
	p	.489	.000			
Model2	B	-.056	.037	12.017 (p<.001)	.101	.093
	β		.245			
	t	-1.107	3.660			
	p	.269	.000			

1):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이해, 2):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담임의 일반적인 특성과 특성화고등학교,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8년 대전광역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특성과 인식, 담임 반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임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 교사의 양성과정, 교사의 학력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담임교사가 남자 교사인 경우($M=.2101$), 여자교사일 때($M=.1548$)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t=2.865, p=.005$), 교직이수나 교육대학원과 같이 사범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교사가 담임교사일 경우($M=.2110$), 사범대를 나온 교사가 담임교사일 때($M=.1608$)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할 확률($t=-2.045, p=.044$)이 더 높았다. 담임교사의 학력이 학사인 경우($M=.1477$)보다 박사인 경우($M=.3064$)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할 확률이 더 높았지만($F=7.734, p=.001$), 박사학위를 가진 교사의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남학생의 경우 담임교사의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beta_1=.252, p=.002$),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beta_2=.221, p=.009$), 특성화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beta_3=.183, p=.030$)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식은 $y = 0.018 + 0.252*\beta_1 + 0.221*\beta_2 + 0.183*\beta_3$ 이고 설명력은 12.2%($R^2=0.122$)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특성화고 학과에 대한 이해($\beta=.170, p=.036$)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귀식은 $y = 0.061 + 0.170*\beta$, 설명력은 2.9%로($R^2=0.029$)이었다. 남·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이해 ($\beta_1=.245, p=.000$)와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beta_2=.149, p=.027$)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식은 $y = -0.56 + 0.037*\beta_1 + 0.025*\beta_2$ 이고 설명력은 10.1%($R^2=0.101$)이었다.

셋째, 담임교사의 전체 교직경력, 중학교 3학년 담임 경력, 담당 교과목,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해 등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담임교사의 전체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M=1782$)에 비해 10년 이상~15년 미만($M=1495$)에 현저히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율이 떨어지지만, 20년 이상인 경우($M=.2378$) 급격히 높아진다. 유금연(2009)이 교사의 교직 헌신도가 10년 차가 지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가 20년 차 이상이 되면 다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기를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또, 담임교사의 담당 교

과목에 따라서는 담임교사가 사회 및 역사(M=.2008), 기술·가정(M=.2109), 음악(M=.2727)일 때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는 비율 20%가 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는 표본에 비해 담당 교과목 그룹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 담임교사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이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교육청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한정된 지역에서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진학 결정율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고, 담임교사의 경력이나 담당 교과의 영향도 평균값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충분한 표집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단위의 연구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에 대한 이해,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학생들을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데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연수를 제공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와 설명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중점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영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와 중학교 담임교사들의 행정적 노력이 낭비되는 일을 줄이는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학생들에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졸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까지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성적이 아닌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선영(1996). **아이덴티티(Identity) 발달수준과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권지영(2014). **인문계 고등학교 담임교사 기피요인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김우영, 신희경(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 김장현(2014).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인식:D중학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대전광역시교육청(2018). **2018 대전교육통계연보: 대전교육2019-119**.
- 박몽진(2004).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박은혜(2012).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 전기·전자·통신 전공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양선주, 김소연, 이규녀(2014). 대전광역시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에 터한 진로 상담 운영 실태와 요구조사.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9(1), 85-101.
- 유금연(2009). **중학교 교사의 특성에 따른 교직원들의 수준 분석 연구 : 경기도 수원 교육청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이명훈(2015). 특성화고 1학년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 변인.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5(1), 68-86.
- 이명훈(2016).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2), 149-166.
- 이성도(2002).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정재완(2006).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운신(2003). **중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 포항 시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병덕(2017). **중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민지(2011).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 진로교육 관심 단계와 실행 수준 및 실태 : CBAM 모형에 기초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최은영(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 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한혜정(2003). **중학교 교사의 자기존중감과 직무만족도가 진로교육 태도 및 지도실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pp. 404-414.
- Walsh, W. B., & Osipow, S. H. (Eds.). (1988). *Contemporary topics in vocational psychology. Career decision making*. Hillsdale, NJ,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3rd grade teachers in charge in middle school affecting their students' decision to enter specialized high school - around the Daejeon metropolitan area

Dasol Kim*, Wonsik Choi**

During the period of rapid industrial growth, specialized high schools were important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trained specialists and technicians. But now, specialized high schools turned into high schools where the low-ranking students who were pushed out of the competition for admission due to a decline in the education population, changes mostly in labor demand in the labor market, and discrimination against skilled worker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middle school 3rd grade teachers in charge of the middle school can provide early career guidance, so that they can decide to go to the specialized high school according to their aptitude and talent rather than their gra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middle school 3rd grade teachers, and the rate of decision to enter specialized high school. In 2018, The middle school 3rd grade teachers in charge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When 3rd grade teachers in charge are the male teachers 21.01%(M=.2101) of their students go to specialized high schools. When they are teachers who have not graduated from college of education(M=.2110), with doctoral degree(M=0.3064), of their students go to specialized high schools.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high school teachers ($\beta_1 = .245, p = .000$) and high school graduates ($\beta_2 = .149, p = .027$). The regression equation derived from this is $y = -0.56 + 0.037 * \beta_1 + 0.025 * \beta_2$ 10.1% ($R^2 = 0.101$).

Key word: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 in charge, advance decision, career guidance

* Teacher, Daejeon Samirae Middle School, losad721@naver.com

** Correspondenc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wonsik@cnu.ac.kr